

던다스 스트리트 이름 검토 공청회 이야기

2020년 조지 플로이드, 브리오나 테일러, 레지스 코르친스키 파케의 사망을 계기로 북미의 여러 도시, 전 세계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시위가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시위자들은 흑인과 원주민, 그리고 기타 평등을 염원하는 커뮤니티의 삶을 한없이 억압하는 계급적, 구조적인 인종차별에 저항하며 동상을 쓰러트리고, 역사적 기념물과 훈장에서 인종차별적 행위를 일삼고 노예제를 지지한 사람들의 그림자를 지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조적 인종차별의 희생자들에게 정의를 실현하자는 이러한 요청으로 인해 공간 조성의 중요성에 관한 대화가 시급해졌습니다. 공공공간의 계획, 설계 및 관리를 이런 태도로 접근하는 것은 도시를 모든 시민, 특히 토론토의 흑인과 원주민 커뮤니티가 포용성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더욱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하에 공공공간을 전면적으로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노예제 지지자의 이름을 딴 공원이나 원주민 기숙학교를 만드는 데 일조한 사람을 기리는 기관은 우리 커뮤니티의 흑인과 원주민 구성원들이 환대를 느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2020년 6월, 던다스 스트리트(Dundas Street)의 이름을 바꾸자는 [온라인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14,000여 명이 서명한 이 청원은 거리의 이름이 유래된 스코틀랜드 정치인 헨리 던다스에 반대합니다. 던다스는 대서양 노예 무역의 폐지를 조직적으로 지연하여 50만 여명의 흑인을 영국 제국의 노예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청원에 대한 응답으로 존 토리 시장은 크리스 머레이 시 매니저에게 토론토시 반 흑인 인종차별 철폐 부서(Confronting Anti-Black Racism Unit)와 원주민 관계부(Indigenous Affairs Office)가 포함된 시 공무원 업무팀을 꾸려 해당 이슈를 검토하고 보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9월 30일 시의회는 던다스 스트리트 개명 청원에 대한 시 매니저의 [보고](#)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라 토론토 시민과 흑인, 원주민, 장애인 및 기타 평등을 추구하는 커뮤니티들과 함께 전면적인 공청회가 열립니다.

이름에 무엇을 포함시킬 것인가?

공청회를 통해 여러분은 던다스 스트리트의 이름을 바꾸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던다스 스트리트라는 이름은 유지하되 명판이나 표지판에 역사적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시한다
- 이름에 던다스가 포함되는 시 재산은 개명하되(TTC 제외) 던다스라는 거리 이름은 유지한다.
- 이름이 던다스인 거리와 모든 시 자산을 개명한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던다스 스트리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름을 짓고 누구를 기리기로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대변되는 자는 누구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누구인가? 우리의 이름은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가? 공청회에서는 또한 시 자산의 명명 및 개명 원칙과 기타 인정 형태를 포함해 토론토시의 전반적인 기념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권고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검토와 공청회는 반 흑인 인종차별 및 원주민 커뮤니티에 대한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우리 시의 행보와 궤를 같이합니다. 2017년 반 흑인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실행계획(Toronto Action Plan to Confront Anti-Black Racism)을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일, 유엔의 국제 아프리카 후손을 위한 10년(International Decade for People of African Descent)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일, 진실과 화해 및 원주민 커뮤니티에 대한 토론토시의 지속적인 노력 등이 그러한 예에 해당합니다. 공청회에는 또한 장애인 커뮤니티와 여성을 포함해 기타 평등을 추구하는 커뮤니티의 대표부가 참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음을 통해 발언하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 발표자 패널 이벤트
- 전화 타운홀 공공 이벤트
- 핵심 이해관계자들과의 회의 및 토론. 여기에는 시 파트너십 및 책임 서클(City's Partnership & Accountability Circle), 원주민 문제 자문위원회 (Aboriginal Affairs Advisory Committee), 원주민 장소조성 서클(Indigenous PlaceMaking Circle), 토론토 접근성 자문위원회(Toronto Accessibility Advisory Council) 및 공정 및 통합 자문 그룹(Equity and Inclusion Advisory Group), 역사 협회, 사업 개선 영역 (Business Improvement Areas) 및 커뮤니티 단체 등이 참여합니다.
- 크레딧 퍼스트 네이션의 미시사가, 허데노셔니, 휴론-웬다트를 포함한 전통 영토 및 조약 당사자들의 회의
- 여론조사
- 온라인 설문조사 웹페이지
- 의견 제시 전용 이메일과 전화

자세한 내용은 toronto.ca/dundasreview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